

원내대표 경선 하루 앞둔 민주통합 폭풍전야

박지원 1차 과반득표 관심 非朴연대 파괴력은 얼마나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민주통합당의 내부 분위기는 폭풍 전야다. 경선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조는 물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일생을 걸고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박지원 최고위원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일단, 박지원 최고위원 측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65~70표 이상을 확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노 그룹이 25~30명, 친 박지원 진영이 10~1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동안 양 진영에서 발목을 잡아 30~40표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힘난한 대선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박 최고위원이 원내대표로 적격이지 않느냐는 물 밑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 후보들이 박 최고위원을 넘어설만한 정치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

다. 하지만 '이해찬(당권)-박지원(원내대표)' 역할 분담론에 따른 당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초선 의원들이 박 최고위원 지지를 표명했으나 확산할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도 변수다.

박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친노 그룹과의 연대 논란으로 박 최고위원 지지를 결정한 의원들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당일 경선이 실시되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박 연대(비 박지원)에 나선 유인태, 이낙연, 전병헌 후보는 '이-박 연대'에 대한 당내 여론이 '단합'이 아닌 '담합'으로 평가되면서 1차 투표에서 박 최고위원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박 연대' 주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지지하기

로 한 만큼, 결선 투표에서 비박 연대 후보가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이-박 역할 분담'에 지지를 보냈던 문재인 당선자가 한 발 물러선데다 범 친노계인 정세균 의원과 486 그룹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박 최고위원의 '대세론'이 사실상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이-박 역할분담론'에 대해 초선 의원들의 비판적 반응이 우세한데다 당내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도 적극적 견제에 나선 전방위에서 박 최고위원의 과반 득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박 최고위원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면 하더라도 '비박 연대' 후보가 승리할지는 미지수다.

비박 연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결선 투표에서 실질적 결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온 MJ '호남 꺼안기' 주력

"정치는 생물" 반박근혜 연대 가능성 시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첫 방문지로 2일 광주를 찾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남 꺼안기에 주력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은 '목욕탕 수증기'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순수하

고 정의감이 넘치지만, 분노가 많은 사람 같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광주를 찾은 정 전 대표는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호남지역민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호남에 대한 애

정을 표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총선결과와는 여야가 무승부를 이뤘지만, 대통령 선거 환경은 새누리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당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에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수도권

20~40대 젊은층과 대화하며 정당득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그 역할을 제가 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을 향해서도 강도높은 비난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일부 영입 외부 비대위원들은 아직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는 당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대위는 정몽준과 대표성도 없어 출범 때부터 인정할 수 없었고, 총선 이후 해체됐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연대에 대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며 비(非)박 연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인기와 지지는 목욕탕의 수증기, 어제 내린 눈과 같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권 경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초청 강연에서 '국내 벤처기업은 실패가 많았고 벤처기업인 중에는 사기꾼이 많다. 사기꾼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며 "순수하고 정의감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가슴 안에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했으며, 3일에는 목포를 방문해 호남지역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일 광주를 찾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년여 끈 제2무등도서관 건립 탄력 받나

정몽준 "구체적 계획 나오면 적극 행기겠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광주에 기부하겠다는 광주 제2 무등도서관 건립사업이 1년여 만에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광주를 방문한 정 전 대표는 2013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11개월 만인 2일 다시 광주를 찾은 정 전 대표는 도서관 건립·기부 약속에 대해 "강온대 광주시장으로부터 전화도 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정 전 대표의 약속이 관바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금액과 건립장소를 둘러싼 광주시와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하면, 그곳에 100억 원의 건축비를 투입해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는 애초 계획을 바꿔 토지구입비를 포함해 설계용역비, 도서관구입비, 정보화시설비 등 200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사업비 요구가 2배로 늘자 아산재단 측은 난색을 표한 것이다.

건립장소에 대해서도 이견이 컸다. 아산재단 측은 지난 1981년 현대건설이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인근을 고수했고, 광주시는 도서관이 부족한 자치구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원내대표 9일 선출 남경필 출마 선언

새누리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일 "9일 19대 국회를 이끌어갈 첫 번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애초 15일 열리는 전당대회 이후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19대 국회 개원협상 등을 위해 원내대표 선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원내대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태원·이한성·권선동 의원과 김희정 당선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과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손학규 "국민은 정치놀음에 질렸다"

귀국 회견서 '이박연대' 정면 비판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총리와 박지원 최고위원이 연대한 것에 대해 "어떤 정치든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놀음에 매몰돼 있으면, '공화 정치'에 매몰돼 있으면 국민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놀음에 질려 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또 "우리는 국민의 눈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은 구태정치에 보고자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의 관심은 정권교체 그 자체에 있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은 어려운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 민생을 챙겨줄 수 있는 정부에 있다."

민주당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때 국민은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정권교체에 관심을 가진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국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고,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지난달 22일 출국해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영국·스페인 등을 방문했다.

그는 "복지공통체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은 여러 가지 말이 많다 하더라도 견제해 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만나고 본 것을 기초로 국가발전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주택용태양광 3kW

태양열난방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